(사)한국예절문화원

고전의 현대적 적용



교육자료
2020-05-04

- 고전에 나타난 가정의례는 의례를 행하는 의미·상세한 형식·장소·기물·복식·음식·진설 등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례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시간·금전 등도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며 어려운 형식은 간소화되고 기물과 음식, 복식 등은 변화·생략되어서 전해 내려왔다.
- 17세기 이후 신분제도가 문란해지면서 가례의 준행(遵行)은 양반의 체모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고, 탈 신분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 19세기말 갑오개혁(1894)의 영향으로 유교의 윤리가치가 떨어지게 됐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는 혼·장·상의 번거롭고 까다로운 규칙과 번잡한 인습적 폐단을 없애려 했다. 이것은 단순히 표면상 적폐를 없앤다고 한 것이지만 우리문화 유산을 말살하려는 식민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 1969년 가정의례준칙의 제정과 1973년 개정은 가례문화를 축소변화 시켰다.
-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발전은 도시화 되면서 대가족공동체기반이 약화되어 점차 전통가례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제일 먼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혼례였고 관례는 단발령으로 머리가 짧아지면서 드물어졌다. 현재 상례와 제례역시 많이 변화되었으나 혼례처럼 짧은 시간에 변화된 것은 아니며 의미와 형식이 남아있다.
- 현대에는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 변형되고 있지만 인간은 어떠한 형태이든 생의 진전에 따라 걸 맞는 의례를 거치며 일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

① 현대의 성년례

• 성년례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성장하여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되기 위한 과도기에 문화적 마디를 짓는 의례이다.

• 겉모습을 바꾸어 초례(醮禮)하고, 자(字)를 지어주며 말씨도 달리하여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 어른이 되기 위한 의식을 엄숙히 갖는 것은 어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뿐 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을 권고하는 것이다.

• 오늘날의 성년례는 전통의 정신적 의미를 살리고, 절차는 간략하게 변형시켜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명칭

- 현대에는 생활풍습이 변화하여 상투를 틀고 관(冠)을 쓰거나 쪽을 찌는 일이 없어졌으므로 관례(冠禮)나 계례(笄禮)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성년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성년례의 시기

- 만 19세에 정부가 법적으로 성년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에는 개인적으로 알맞은 시기를 정해 성년식을 할 필요가 있다.

㉢ 성년례의 목적

- 가족의 중심에 있음을 각인되게 한다.	- 스스로를 소중히 아끼는 자존감(自尊感)을 갖게 한다.
- 친구 간에 융화(融和)를 유도한다.	-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 품격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

② 현대혼속(現代婚俗)

㉠ 교제·맞선

- 교제를 시작했거나 맞선을 본 것은 양가를 맺게 하는 귀중한 인연의 시작이므로 상대 가정의 가법, 당사자의 인물됨을 신중히 알아보고 고려해야 할 의식이다.
- 오랫동안 교제를 한 관계라도 양가 부모님들께 승낙을 받기 전에 당사자들이 준비한다.

㉡ 청혼·허혼

- 양가의 부모님들이 혼인을 허락했더라도 청혼(請婚)과 허혼(許婚)의 의식절차를 밟아 예를 갖춘다.

㉢ 상견례·사주

- 사주를 보내는 것은 혼인을 약속하는 절차이다. 요즈음은 약혼식을 생략하여 사주를 함속에 동봉하여 보내기도 하는데, 양가의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이 상견례 할 때에 신랑 집 주혼자가 신부 집 주혼자에게 정중히 드린다.

㉣ 연길(涓吉:擇日)

- 신부 집에서 집안의 사정 · 신부의 여건 ·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날을 잡고 신랑 집에 연길(涓吉)단자를 보낸다.

㉤ 함보내기(納徵)

- 혼서와 함께 혼인의 증표로 동심결한 청홍비단과 가락지 등을 함에 넣어 혼례식전에 신부 집에 보낸다.
- 함은 신랑의 부모님이 정성을 다해서 마련하는 것이고, 예를 갖추어 신부 집에 드리는 것이므로 지나친 장난과 함 값 요구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

㉤ 예식(禮式)

- 현대는 전문 예식장을 비롯한 의미 있는 장소를 선택 할 수 있다. 어느 곳을 선택하든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이 의논하여 낯을 붉히거나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과다혼수, 호화로운 예식으로 인한 경제적 지출을 자제하여 당사자와 부모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폐백례

- 장소를 정해 예식을 한 후 시부모님께 폐백(幣帛)을 올리고 참석한 일가친척들에게 바로 예를 표하는데 이것은 현대의 편리성을 따른 것이다.
- 폐백례 음식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대추 · 육포 · 편포 등을 시부모님께 드린다.

㉦ 신혼여행

- 전통혼례는 대례를 올린 신부 집에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요즈음은 여행을 떠나므로 신부 집이 아닌 곳에서 합방하게 된다. 호사스런 관광만을 추구하기보다 새 삶을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고 어려움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

㉧ 우귀(于歸)

- 신랑신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먼저 신부의 부모와 친척에게 인사하고 하루 밤을 지낸 다음 시댁으로 간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

③ 상례(喪禮)

- 조선후기 유교식 장례법이 정착 되었으나 현대에는 생활방식과 주거문화의 변화로 전통상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 초상(初喪)은 전문장례식장에서 치르게 되므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의 대부분을 전문장례사가 맡아서 하며, 시신부패 방지시설이 있어서 소렴(小殮)과 대렴(大殮)의 절차는 무의미해졌다.
- 상복역시 사자(死者)와의 관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마음을 나타내는 상복을 입었으나, 지금은 세분화되지 않으며 남자는 검정양복과 상장(喪章)을 여자는 흰색이나 검정색 한복을 입고 상장 핀을 머리에 꽂는다.
- 조문의 절차도 각각의 종교와 상주의 형편에 따라 좌식과 입식을 택해서 하며 장례의 방법은 매장(埋葬)을 주로 했으나 지금은 화장(火葬)하여 안치하거나 산골(散骨)하며 수목장(樹木葬)을 하는 경우도 많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

④ 제례(祭禮)

• 제사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족 간에 결속감과 상호 협조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삶의 변화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볼 때 제사도 과거의 형태에서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 현재는 기제사·차례성묘를 중요한 제사로 인식하고 있으나 집안의 종교·전통관습·형편 등에 따라 각자 달리하고 있다.

㉠ 제사지내는 주관자

- 제사는 장자가 일차적 책임을 졌으나 사회변화에 따라 아들 · 딸 누구나 지낼 수 있다. 현대에는 출산이 저조하고 딸과 동거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위가 처갓집 제사에 참여한다.

㉡ 제사지내는 시간

- 기제사는 오늘날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해마다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과거에는 전날 모여 음식을 준비한 후 돌아가신 날 자시(子時)이후에 지냈으나 요즘은 당일에 모여 음식준비 후 저녁시간에 지내기도 한다. 명절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명절날 아침에 지낸다.

㉢ 제사 상차림

- 상차림이 있는 제사는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형식을 간소화한 현대식 제례이며 상차림이 없는 제사는 상황에 따라 상차림을 생략한 제례이다.

COPYRIGHT (C) (사)한국예절문화원 2018. ALL RIGHT RESERVED